

같이 보기

: 현장탐방 - 대경대학교 헌혈행사

Differences
the Value

생명을 살리는 헌혈!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대경대학교

대경대학교 김희량 교수를 만나다

글 김아름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북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헌혈은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혈액을 아무런 대가 없이 기부하는 고귀한 일이다. 코로나19로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가을 기운이 가득한 지난 9월 경북 경산에 위치하고 있는 대경대학교에서 헌혈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한마음혈액원의 헌혈 버스에는 오전 9시부터 헌혈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행사 기간 중 80~90여 명의 재학생들이 헌혈에 참여하여 뜨거운 봉사 정신을 보여주었다. 대경대학교 재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건 학생들의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과 간호학과 김희량 교수님의 공이 컸다. 특히나 김희량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헌혈에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이라며 적극적으로 헌혈 독려와 더불어 학생회와 함께 헌혈 홍보 및 안내를 도와주셨다.





Q.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간호'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경대학교 지역사회간호학과 교수 김희량입니다. '간호'란 인간다움을 바탕으로 개인의 특성에 따른 주관적, 객관적 편안함(더욱 건강한 삶)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이 기대하는 건강 수준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면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고, 다양한 관계와 상호작용을 하며 자연과 함께 행복을 누리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돌보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간호입니다.

Q. 간호학과를 전공하고 교수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빠른 변화에 적응하며 바쁘게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인간다움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학생들과 함께 간호인으로서의 나의 가치관과 신념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편안함', '불편함',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돌봄을 하는 그들도 스스로 건강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돌볼 수 있는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듯이 자신도 돌볼 수 있는 전문 간호인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지지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도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위라벨의 가치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편안함의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 싶었나 봅니다.

같이 보기

: 현장탐방 - 대경대학교 헌혈행사



Q. 교수님의 교육철학이 궁금합니다.

“이 세상 어느 것 하나도 나와 관계없는 것은 없다. 인륜과 도덕의 문제도 나의 일이다. 인간이기에 끊임없이 배우고 다듬어야 한다. 그러기에 습득한 삶의 지혜를 공유함으로써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정리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가르치는 것은 나를 다듬고 정리하는 과정이다. 과정을 통해 정도를 찾고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정리하며 끊임없는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단계별로 나의 존재와 가치를 재정립하며 발전해갈 수 있는 스스로의 알리를 설정할 수 있는 전문인이 되길 기대한다. 시작하라 그러면 반은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반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고, 또 반이 남게 되면 다시 시작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완수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저의 교육철학입니다.

Q. 대경대학교 간호학과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따뜻하지만 도전적이며 특별한 나만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다름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열정이 가득한 학교의 교육철학을 토대로 교육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며 간호학과 학생들을 어디에서든 열정과 인간다움으로 준비된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학과입니다.





Q. 대경대학교 학생들의 헌혈 참여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홍보를 통해 헌혈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상 시간을 내서 헌혈하는 곳으로 찾아가기에는 너무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한마음혈액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찾아오는 헌혈 캠페인’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간호학과로 국한하기보다는 학교 전체 홍보를 통해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뿐입니다. 너무나도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일부러 찾아가서 헌혈을 하지 못할 뿐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마음혈액원에서 규칙적으로 와 주신다면 여건이 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하지 않을까 합니다. 정이 있고 따뜻함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Q. 헌혈에 동참해주신 계기와 헌혈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의료인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혈액이 부족하다는 방송을 들을 때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사는 세상이니깐요. 헌혈에 대한 부족한 정보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찾아오는 헌혈 캠페인’은 국민의 참여도를 더 높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경대학교는 한마음 혈액원과 함께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헌혈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 번의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 3명에게 생명의 실타래가 되어준다고 한다. 김희량 교수님과 대경대학교 학생들의 헌혈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혈액 수급 안정화와 함께 헌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길 바라본다. 🍷